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재난정보에 대한 미디어 의존

: 제주지역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원 지 애

2021년 8월

재난정보에 대한 미디어 의존

: 제주지역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낙 진

원 지 애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원지애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6월

A Study of Media Dependency on the Disaster Information
: Based on Interview with Sri Lankan foreign workers residing in
Jeju

Ji-Ae Won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자 이야기	1
2.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II. 이론적 배경	6
1.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등록 현황	6
2.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이용 실태	10
3. 재난과 미디어	14
1) 재난의 정의와 코로나19 감염병	14
2) 선행연구 검토	18
(1) 재난과 미디어에 관한 연구	18
(2) 외국인과 재난에 관한 연구	20
4. 미디어 의존 이론	23
1) 미디어 의존의 개념	23
2) 미디어 의존 모형	25
3) 미디어 의존과 위협인식	26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9
1. 연구문제	29
2. 연구방법	30
1) 심층인터뷰	30
2) 포커스그룹 인터뷰	31
3. 연구대상	32
1) 목적표집	32
2)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35

IV. 연구결과	37
1. 평상시 미디어 이용 행태	37
1) 이주 전 미디어 이용 행태	37
2) 이주 후 미디어 이용 행태	39
2.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45
1) 자연재난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45
2) 사회재난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46
(1) 대인커뮤니케이션	46
(2) 인터넷 미디어	49
(3) 자국의 가족들	52
(4) 긴급재난문자	53
3. 위협인식과 미디어 의존	54
1) 재난상황에서의 위협인식	54
2) 위협인식과 미디어 의존	57
V. 결론 및 논의	59
1. 연구결과 요약	59
2. 제언 및 한계	62
<참고문헌>	65
<Abstract>	70

표 목 차

<표 1> 국내 세부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7
<표 2> 2020년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8
<표 3>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9
<표 4>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	11
<표 5> 재난의 유형과 사례	14
<표 6> 미디어 의존 유형	25
<표 7> 심층인터뷰 대상자 프로파일	33

그림 목차

<그림 1> 인터뷰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미디어	50
-------------------------------------	----

재난정보에 대한 미디어 의존

: 제주지역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질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위기를 야기한다. 대중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질병에 대한 정보 욕구는 증가하며,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른 정보수집, 상황판단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재난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미디어 이용 현황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알아보고, 재난 위협인식에 따른 미디어 의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심층인터뷰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선택했다. 연구대상자는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미디어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텔레비전을, 한국에 온 이후에는 인터넷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으며,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값비싼 요금과 열악한 인터넷 통신 시설로 인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온 이후에는 텔레비전의 경우 숙소에 구비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고,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요금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미디어는 자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자국 미디어 콘텐츠 이용, 근로 및 여행 등과 같은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 검색, 게임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정보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미디어, 자국 가족, 긴급재난문자

등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는 주로 고용주와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제공되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으며, 정보 습득 후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통미디어는 배제된 인터넷 미디어 의존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로 재난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자유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일 자국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며 가족들로부터 한국의 재난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에서 전달받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접하고는 있으나 언어적 제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번역한 후에야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위협인식을 느낄 때마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세상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인터넷 미디어 의존이 높게 나타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인터넷 미디어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사용하는 통합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재난정보, 미디어 의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I. 서론

1. 연구자 이야기

본 연구자가 본 연구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5년 5월부터 제주시 구좌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였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3~4번 점심시간 전·후로 한국인 근로자와 함께 혹은 그들만 4명~5명씩 무리 지어 식당을 방문하면서 식당 손님으로 인사를 했었다. 그들은 내게 한국인과 다른 생김새에 조금 전까지 일하다 온 사람처럼 작업화를 신고 식사를 하면서 영어가 아닌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처음에 그들은 고기국수와 국밥을 좋아하는 단골손님이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 한 명이였다. 그렇게 5년을 지켜보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과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¹⁾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뉴스 속보가 끊임없이 나오던 2월 어느 날 안전재난 문자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처럼 식사 중이었던 손님들이 일제히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문자를 확인하고 자국어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재난문자는 어떤 언어로 보내지는 것일까? 내용을 잘 이해하고는 있을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상황인 지금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재난정보를 받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연구자로서 잠시 멈춰있었던 연구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곳이 중국 우한으로 의심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우한폐렴’으로 불리다가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

2.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팬데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는 큰 인명 피해는 물론 개인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는 140,799명, 사망자 1,963명²⁾으로 전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에서 1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부터였다. 확진자 중 120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이들은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식당, 샤워장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평창에서는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배추 작업을 한 외국인 근로자 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5월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26명이 확진됐다. 또 강원도 강릉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같은 동선에 있거나 여럿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밀집된 공간 속에서 함께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감염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근로자는 재난약자 중에 자국과의 문화·생활환경 차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언어적 약자로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이 힘들어 대피나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속한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시에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감염병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감염병 전파로 인해 내국인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세계화 및 국제화 흐름 속에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문화,

2) 2021년 6월 1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보도참고자료 기준(매일 0시 기준, 하루 1회 집계).

정치적 지형이 확연히 달라질 정도로 이주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노지현, 2015).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됐으며,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일정 규모로 허용하는 ‘고용허가제’³⁾가 실시된 2000년대부터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나타난 국내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기준 1,145,540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1,271,807명보다 6.3%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365,532명(31.9%)이고, 그 다음이 서울시로 270,487명(23.7%)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하면 등록외국인의 55.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 거주지역은 지역 간에는 큰 차이 없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국제결혼,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심화 및 출산을 저조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결혼 이주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현심, 2014; 최석현, 2013).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여러 재난 위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대표적으로 2015년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⁴⁾은 국가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메르스 관련 기초 지식이나 예방법, 확진자 발생 병원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 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고용주가 사전 설명 없이 ‘주말 출입금지’ 조치를 내려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내에 갇혔던 것이다.⁵⁾⁶⁾

3)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5년 범위에서 국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4)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대상자 1만 6,693명이 발생했다.

5) [메르스 비상-방역 24시] 한국말 서툴고 정보 없고...외국인 노동자 발 동동 <서울신문> 2015.06.12.

6) '메르스' 때 부·울·경 외국인 이주민 '정보 사각지대' 방치 <부산일보> 2015.10.15.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들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활보고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보 부족, 허위뉴스로 인한 불안감 증폭, 집단생활로 인한 거리두기 불가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준 감금 생활의 지속 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공포와 함께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⁷⁾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역물품을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 493개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거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및 진단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으로 나타났다.⁸⁾ 부산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2020년 1월부터 5월에 걸친 상담사례를 분석한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20)에 의하면, 마스크 및 방역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44%), 체류 관련(26%), 노동 관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66.6%, 65.7%),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제공된 재난문자로 인한 어려움(26.7%, 29.8%)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⁹⁾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래전부터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재난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재난정보와 대비 행동을 국민에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곽천섭·이양환, 2014). 위험의 사회적 증폭모형에 따르면, 위

7) 중국과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발병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는 2020년 3월 까지 전체 감염자 수가 하루 평균 15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모범 ‘코로나19 모범 방역국’이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하루 평균 수백 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전체 감염자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이었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06. 26 정례브리핑

9)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2020) 부산 지역과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에서 2020년 5~6월 333명, 7월~8월 307명의 이주민이 응답에 참여했다.

험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된 정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정보 수용자들의 위험 인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2012). 재난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낯선 사회로 이주해 오며 따라 대인 소통 채널이 빈약해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재난상황에서의 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디어 의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이론으로 '미디어 의존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민족국가로 변모해가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사회 경제의 근간이며, 더불어 문화를 일궈야 할 소중한 구성원이다. 본 연구는 재난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재난위기관리 방안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등록 현황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정 제143호의 1장 11조에 이민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영업이 아닌 기타 형태의 고용을 목적으로 자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민하는 자를 말하며, 이민근로로서 정기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migrant workers'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1990년대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설동훈, 1996). 최근까지도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이주노동자, 이주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사용하겠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중 체류자격을 얻었더라도 허가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합법 체류 근로자와 상반되는 개념의 불법 체류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령상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체류 외국인으로 나뉘며, 등록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등록한 외국인, 체류 외국인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이다.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2010년에 7,343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2,943명으로 늘어나 지난 10년 동안 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에는 주로 유학(D-2), 단기방문(C-3),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이다(<표 1> 참조).

등록외국인 중에는 거주(F-2) 3,266명(14%), 비전문 취업(E-9) 3,307명(14%), 영주(F-5) 3,181명(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결혼이민자(F-6) 2,270명(10%), 선원취업(E-10) 2,062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주 사회에 노동 및 고용시장, 외국인 투자, 결혼문제, 대학 신입생 모집, 외국어 교육 등 관련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문순덕·고승환·고경민, 2017).

<표 1> 제주지역 세부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	총계	거주 (F-2)	비전문 취업 (E-9)	특정 활동 (E-7)	결혼 이민 (F-6)	영주 (F-5)	선원 취업 (E-10)	방문 동거 (F-1)	유학 (D-2)	기타
2015	16,960	4,134	2,762	1,068	1,780	1,012	1,707	1,254	824	2,419
2016	19,593	4,669	3,115	2,073	1,894	1,174	1,687	1,514	893	2,574
2017	21,689	4,820	3,603	2,855	2,018	1,390	1,713	1,547	1,021	2,722
2018	24,841	4,785	3,965	3,592	2,049	1,962	1,936	1,604	1,431	3,517
2019	25,668	4,167	3,929	3,323	2,180	2,900	2,072	1,733	1,751	3,613
2020	22,943	3,266	3,307	2,871	2,270	3,181	2,062	1,362	1,517	3,107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2021.03. 현재)

제주지역의 세부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전문 취업(E-9-1~8)자격 외국인 근로자이다.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20톤 미만) 및 양식업, 냉장 냉동, 재료수집, 축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노동자 중 다수 우위 차지하는 어업(20t미만) 및 양식업 종사자들은 도내 각 지역의 당일 입·출항 20t 미만의 어선과 양어장 및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선원취업(20t 이상 선적 근무 어선원 외국인 근로자 E-10)자격 이주노동자는 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추자도 등지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예술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예술 흥행 비자(E-6)소지자이며, E-6-1과 E-6-2 두 종류가 있다. 예술흥행비자(E-6)는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 외국인의 여권과 프로필을 보내면 공연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 후 발급된다.

<표 2> 2020년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장수	외국인 근로자수
어업	477	851
농·축산업	490	876
제조업	253	725
서비스업	51	60
건설업	5	19
합계	1,276	2,53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내부자료(2020. 12)¹⁰⁾

제주지역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표 2> 참조),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제주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선호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인건비 절약과 경영 수익 창출에 크게 관심을 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2020년 기준 농·축산업으로 490개소 87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업 분야 477개

10) 자료의 외국인 체류자격은 E-9 또는 H-2이다. 2020년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에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소 851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 253개소 사업장에 725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으며, 건설업 5개 사업장, 19명이 고용됐고 서비스업 51개 사업장, 6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3> 참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국적별로 등록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영향으로 국가별 입·출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2020년 기준 중국인이 9,25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3,459명(15%)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1,827명(8%), 한국계 중국인이 1,470명(6%), 네팔 1,210명(5%), 스리랑카 786명(3%), 미국 692명(3%), 필리핀 563명(2%), 캄보디아 420명(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 국가로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캐나다, 영국, 러시아(연방), 프랑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3> 제주지역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년)	중 국	한국 계중 국인	베 트 남	인도 네시 아	네팔	스 리 랑 카	필 리 핀	캄 보 디 아	미 국	기 타	합 계
2015	7,342	1,269	2,137	1,364	428	568	583	434	435	2,400	16,960
2016	9,001	1,409	2,303	1,304	555	779	589	478	457	2,718	19,593
2017	9,955	1,469	2,637	1,409	738	827	608	577	531	2,938	21,689
2018	10,968	1,625	3,364	1,626	1,118	889	657	548	607	3,439	24,841
2019	10,844	1,656	3,680	1,843	1,335	882	644	509	679	3,596	25,668
2020	9,258	1,470	3,459	1,827	1,210	786	563	420	692	3,258	22,943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국적별·지역별 현황(2015년~2020년)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는 어업 분야 중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

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후 건강검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표준 근로 계약체결, 사전취업 교육, 입국 및 취업 교육 실시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된다.¹¹⁾ 연구응답자 7명 모두 이러한 절차에 의해 한국으로 비전문 취업(E-9)을 하게 되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이용 실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미디어인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소통 도구로써 미디어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2011)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을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집단으로 분류해했으며 총 1,086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미디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 본 연구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4> 참조).

먼저 한국 입국 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를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모든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으며, 컴퓨터가 두 번째로 이용 경험이 많은 미디어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휴대폰, 다음으로 스마트폰, 신문, 잡지,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이 높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과 스마트폰, 신문, 잡지, 라디오의 차이가

11)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건강검진 적합판정을 받더라도 외국인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진 및 서류를 보고 근로자를 최종 선택해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연구 응답자의 경우 시험을 보고 바로 한국으로 입국한 응답자가 있지만 한 연구 응답자는 1년 6개월 동안 구직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후 2년이 지날 동안 구직이 안 될 시 다시 한국어능력 시험을 치러야 한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2011)의 조사 결과에서 집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텔레비전이 2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25.11%)와 휴대폰(25.02%)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로 나타났으며, 신문(5.84%), 잡지(2.96%), 라디오(2.88%)는 다소 낮은 비율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

구분	이용 경험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		신뢰하는 미디어		정보습득		의사소통	
	N	%	N	%	N	%	N	%	N	%
텔레비전	301	26.24	83	22.5	108	29.3	241	27.02	90	12.47
라디오	33	2.88	0	.0	2	0.5	23	2.58	9	1.25
신문	67	5.84	1	0.3	6	1.6	47	5.27	20	2.77
잡지	34	2.69	0	.0	1	0.3	23	2.58	6	0.83
컴퓨터	288	25.11	137	37.1	148	40.1	270	30.27	209	28.95
휴대폰	287	25.02	95	25.7	57	15.4	196	21.97	261	36.15
스마트폰	137	11.94	53	14.4	47	12.7	92	10.31	127	17.59
계	1,147	100	369	100	369	100	892	100	722	1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11) 조사 결과에서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에 대해 살펴보면, 컴퓨터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텔레비전 22.5%, 휴대폰 25.7%, 스마트폰 14.4%, 신문 0.3%, 잡지 0%, 라디오 0%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특징을 정리하면, 외국인 근로자(37.1%)와 유학생(77.0%)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결혼 이주자(37.7%)와 이주 2세(44.1%)는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용한 미디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

한 조사에는 컴퓨터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텔레비전 29.3%, 휴대폰 15.4%, 스마트폰 12.7%, 신문 1.6%, 라디오 0.5%, 잡지 0.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집단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의 경우 컴퓨터가 30.27%, 텔레비전이 27.02%, 휴대폰 21.97%로 나타났고, 신문 5.27%, 라디오 2.58%, 잡지 2.58%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로는 휴대폰이 3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컴퓨터가 28.95%,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17.59%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에서 텔레비전이 12.47%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순위로는 신문 2.77%, 라디오 1.25%, 잡지 0.83%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인터넷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9%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한국에 입국한 후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81.41분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 장소는 76.4%가 집 또는 숙소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법무부가 실시한 체류외국인실태조사(2013)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 15개 송출국가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 94.9%가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스리랑카는 96.2%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7.1%의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스리랑카 근로자의 경우 89.7%로 타 국적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22.1%였으며, 그 중 스리랑카 근로자의 19.0%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이용 현황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82.2%로 나타났으며,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평균 이용 정도가 4.81점¹²⁾으로 타 국적 대비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는 동영상 시청(85.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채팅/메신저(80.5%), 정보 검색(72.8%), 온라인커뮤니티활동(62.6%), 뉴스 퍼오기(54.3%), 온라인 게임

12) 점수는 전혀 이용 하지 않는 경우 1점, 한 달에 1회 미만 이용 2점,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 3점,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 4점, 하루에 1회 이상 이용 5점으로 산출한 평균 값.

(37.7%)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용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뉴스보기 항목에 있어서는 타 국적 대비 가장 높은 이용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 중 모국 웹사이트 이용의 경우 근로자의 98.4%가 모국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또 문자메시지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92% 정도가 모국의 지인들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응답자의 약 8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자메시지 상대는 모국에 있는 가족 또는 친척이 63.9%로 가장 높았고,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척이 14.0%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 다음으로 한국 내 모국인 친구가 8.0%, 모국인 직장동료(5.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자메시지 공유 대상은 전반적으로 모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모국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인 동료나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공유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리랑카 근로자의 경우 3.6%로 타 국적 근로자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재난과 미디어

1) 재난의 정의와 코로나19 감염병

2013년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5> 재난의 유형과 사례

재난유형	사례
자연재난	태풍, 호우(豪雨), 홍수, 강풍, 풍랑, 대설, 한파, 해일(海溢), 낙뢰, 가뭄, 폭염, 지진,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황사(黃砂),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표 5>과 같이 재난의 원인 유형에 따라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 것은 법률이 재난 안전을 재난의 대비, 예방, 대응, 복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즉, 재난상황 해결에서 있어 재난의 원인에 따라 책임과 대처에 차

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국가는 사회적 책임성은 적지만 대응 복구의 책임성이 있다. 반대로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은 국가가 재난 원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 관리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통합해 접근하자는 경향이 있다(백연경, 2014). 최근 발표된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최근 어떤 재난이 자연적 요인인지 사회적 요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 정의되었으나 풍속, 풍향과 황사 등의 자연적인 영향이 매우 큰 미세먼지나 인위적 요인으로 촉발된 지진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혼재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염병, 산불 등과 같은 재난들을 포괄하여 ‘다중요인재난’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재해 접근법’(all hazards approach)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괄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모든 현상’을 재난으로 통칭하는 ‘결과 중심의 접근법’을 고려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타 주요 정의는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대비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재난상황 연구 대상으로 삼은 코로나19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유행성 감염질환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8.11.) 상의 제1급감염병¹³⁾에 해당하는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서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동 법률에서 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8.11.)상에 포함하는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강해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을 말한다. 이러한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되는데, 코로나19는 긴급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염병이다.

수천만 년 동안 병원체와 숙주는 치열한 적응 과정을 통해 서로 진화하면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과정이 인류사도 전염병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기아도 전쟁도 아닌 전염병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Inhorn & Brown, 1990). 코로나 바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RAN바이러스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속이 있다. 이 중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고,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고,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바이러스는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처럼 전파 능력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장벽이 허물려 빠르게 전파된다. 이처럼 감염병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상황을 팬데믹(Pandemic)이라고 한다. WT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의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고 3월 11일 코로나19사태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이다. 팬데믹에 대한 선언 조건은 ①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②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③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④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가지의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 사무총장이 선포한다.

스병,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남아메리카출혈열,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다.

코로나19는 2021년 6월 1일 현재까지 전 세계 221개국에서 발병하였고, 총 169,910,2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538,479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고, 노령층 및 기저질환 환자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며, 집단면역이 어렵고, 감염 치료 후 재감염이 되기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 다루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방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초/중/고등학교 등교 중지, 영업활동 및 모임 규제 등 개인 간의 일상적 대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과거의 감염병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종교 집단 관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이후 각 지역의 요양병원, 콜센터, 교회, 클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중앙방역대책본부¹⁴⁾를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정부는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접촉자와 이동 경로 파악, 자가격리, 능동감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입원 치료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 8일은 코로나19의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실시해 원격수업, 재택근무,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시설 이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2020년 6월 1일 현재까지 온 국민이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14) 추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2) 선행연구 검토

(1) 재난과 미디어에 관한 연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디어의 역할은 개인의 위험 인식에 기여하는 데 있다(김양은, 1995). 이는 대중은 태풍과 지진 같은 재난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과 라디오는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과 라디오 같은 재난 방송에 의존해 왔던 재난 정보의 전달 통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전통미디어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해결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현재 정부와 많은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Emergency Disaster Broadcast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재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SNS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데 매우 유용한 미디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에서 방송 및 통신이 재난정보 전달의 기능을 잃은 반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당시 도쿄에서는 최대 초당 1,200개의 트윗이 발생했으며,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트위터를 통해 전송된 뉴스의 66%가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웅, 2012).

특히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대중이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다매체·다채널 구조로 변화하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은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활용되는 주요 정보원은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재난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 지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종플루 뉴스 이용이 건강 보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여라(2010)는 대학생 46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신종플루에 관한 매스미디어의 정보 노출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개인의 심리적 보호동기인 심각성, 취약성, 자기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본인의 건강 보호 행위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유우현과 정용국(2016)은 메르스 관련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메르스 관련 대중매체 노출과 메르스 예방 행동 의도사이의 관계를 매개·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메르스 정보 관련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예방 행동에 대해 높은 실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르스 정보 관련 매스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메르스 예방행위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옥태와 김규찬(2010)은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포지각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신종플루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호 등(Ho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뉴스 이용이 신종플루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여 예방행위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관리 도구로써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현곤 등(2011)은 국내 재난 안전 부문에서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의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성공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했다. 류현숙(2013)은 이론연구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및 웹 설문조사와 같은 실증연구를 병행해 위험 소통에 적합한 이론과 모형을 탐색하고, 실제 위험 소통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위험 인식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전략 및 정부와 민간의 위험소통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김현정(2014)은 긴박한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위기 의사소통 도구로서 소셜미디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경우, 세월호와 같은 위기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정부 기관의 소셜미디어의 재난 위기관리 의사소통 도구의 역할 가능성과 이에 필요한 요인과 가치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셜미디어의 재난 위기관리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가치를 강화할 경우, 위기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활

용하여 재난정보를 제공할 때 위기 재난관리 도구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빈과 윤병훈(2018)은 범죄심리학 연구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디어(SNS)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간접적으로 재난 사건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 충격을 경험했는지 알아보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재난상황시 외국인은 SNS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자국 언어를 통한 접근이 아니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정보 전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관련 기관에서 재난 발생 전 단계에 걸친 적극적인 SNS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천섭과 이양환(2014)은 재난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보 전달 채널로서 미디어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규명했다. 그 결과 지진, 원자력사고 등 재난의 특성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에 차이가 있었고, 대면접촉이 재난대비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규명했다. 덧붙여 재난정보 제공에 있어 전통미디어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재난 미디어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원은 다양해졌지만, 감염병 발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외국인과 재난에 관한 연구

재난 취약계층 중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에 초점을 둔 연구는 최근에 방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적 약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에 대한 정책 제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구원희·박진찬·백민호(2015)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경험, 위험도, 문제점,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재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언어의 한계점, 교육·훈련 미흡, 정보제공 경로의 다양성 부족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국어 재난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외국인 대상 재난 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재난 안전 정보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윤

희와 류현숙(2015)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이 처해있는 재난 안전 취약성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겪은 재난 경험과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유형과 원하는 제공 방식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언어적 장애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재난 안전정보 접근성에서 취약성을 보임을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 안전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재난 안전정보 및 콘텐츠의 개발, 맞춤형 전달방식 및 채널 다각화, 현행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효정과 주성빈(2018)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적극성 부족,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와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의 인식 전환 노력, 외국인의 정보 수용 및 확산 방향에 대한 이해, 실질적인 재난교육 강화,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의 언어적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변윤관 등(2019)은 재난 약자를 유형별로 나누고 재난 경보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재난 경보 메시지 독해가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한 경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 및 아이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재난관리정책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변성수 등(2018)은 재난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난 관리 선진국인 미국, 일본의 재난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선 및 관련 업무의 명확화를 제시했으며, 공공 및 민간 조직간 협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약자 지원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은 각 개별기관에서 진행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은 총괄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야 사토미(2019)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분석을 통해 각 기관에서 외국인의 대피 지원 및 안부 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대비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 안전 관련 조례 정비 추진, 대응 단계에서는 긴급정보 전달체계 구축, 복구단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재난정보 및

복구를 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선행연구는 재난관리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재난안전 정책을 다룬 연구(구원희·박진찬·백민호, 2015; 김윤희·류현숙, 2015; 구효정·주성빈, 2018; 이와야사토미, 2019; 변윤관·이현지·최성종·조용성·배병준, 2019), 재난 시 미디어의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김현곤, 2011; 류현숙, 2013; 곽천섭·이양환, 2014; 김현정, 2014)가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매체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재난약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미디어 이용자로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미디어 이용자로서 자국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상황인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정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전달받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디어 의존 이론

1) 미디어 의존의 개념

‘미디어 의존 이론’은 산드라 벨로케치(Sandra J. Ball-Rokeach)와 멜빈 드플로이(Melvin J. DeFleur)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미디어·개인·사회적 환경이 모두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론이다(오미영·정인숙, 2005)

미디어 의존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화 및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접근에 의하면, 수용자의 미디어 의존은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오미영·정인숙 2005). 미디어 의존 이론에서는 미디어의 권력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능력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는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다(Ball-Rokeach, 1985). 특히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많아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능력이 확대되면서 개인들은 여러 가지 정보의 원천으로서 매스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과거 부족사회나 전근대 사회의 경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법률 제정, 정부 정책의 변화, 취업정보, 경제지식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동선, 방역수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미디어 정보의존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의존이론은 이용충족이론의 한계점, 특히 개인이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시도됐다. 미디어 의존이론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특별한 의도나 목적을 지니고 미디어를 선택하고 소비하는데, 이런 미디어 이용은 미디어 시스템의 독특하고 핵심적 정보기능이 수행될 때,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김진영 2003).

즉, 미디어 의존이론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미디어가 수용자의 인지(beliefs), 정서(feelings), 행동(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3자 간(미디어, 수용자, 사회) 상호관계를 토대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매스미디어의 인지적 기능의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감소 기능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도의 형성 기능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환경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공공적 이슈가 등장할 때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제설정기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이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신념의 확대나 변화 기능으로써 미디어가 간접적 경험을 제공해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세상의 이슈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환경보호에 대한 신념을 형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명확히 하는 가치관의 형성과 명료화 기능이다.

매스미디어의 정서적 효과는 미디어 메시지에 이용자의 느낌이나 감정이 변화는 효과이다.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¹⁵⁾을 접한 후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피해자에게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느꼈다면 미디어의 정서적 효과가 작동한 것이다. 즉, 사람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여러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강도의 적대감, 근심, 두려움, 좌절 등 그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감정들을 보여준다. 대부분 이러한 감정적 변화는 태도 변화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태도 변화는 감정 변화 이후 효과로 나타나기 쉽다.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의 행동적 효과는 수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벨로케치와 드플로이(Ball-Rokeach & DeFleur, 1989)는 수용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을 때 미디어의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5)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렀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미디어 의존 형상은 의존의 강도(intensity)와 범위(scope)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의존강도는 수용자들이 미디어의 정보가 자신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Ball-Rokeach, 1985; Loges, 1994; Lowrey, 2004). 이러한 강도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 목적이 미디어 접근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의존 영역은 정보나 미디어 유형 그리고 동기의 범위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2) 미디어 의존 모형

개인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벨로케치(Ball-Rokeach, 1985)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미디어 의존 관계를 크게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분류해 여섯 가지 의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6>).

<표 6> 미디어의 의존 유형

구분	이해 · 인지 (Understanding)	태도 · 행동의 결정 (Orientation)	오락 · 휴식 (Play)
사회적 차원	사회적 이해 (Social understanding)	행동 (Action)	사회적 놀이 (Social play)
개인적 차원	개인적 이해 (Solitary understanding)	상호작용 (Interaction)	개인적 놀이 (Solitary play)

출처 : Defleur & Ball-Rokeach,(1989: 336)

개인이 미디어를 의존하는 동기는 크게 이해·인지(understanding), 태도·행동의 결정(orientation), 그리고 오락·휴식(play)으로 알려져 왔다. 첫 번째로 이해·인지(understanding)의 욕구는 의미와 지식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들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Ball-Rokeach & DeFleur, 1989). 이해·인지(understanding)는 정보 획득, 지식, 사실의 인식, 그리고 해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때 가능하다(Gudykunst & Kim, 1997).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의 모호함을 다루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한다. 미디어 의존이론에 의하면, 이해는 자아(self)와 사회(social)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DeFleur & Rokeach, 1989). 자아 이해는 자존감, 신념, 가치, 태도 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이해는 사회와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두 번째 태도·행동 결정(orientation)요인은 개인들의 지향(need for orientation)에 기인하는데, 개인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주변에 적응하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이다(Bryant & Oliver, 2008). 이러한 태도와 행동 결정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적절성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는데, 적절성은 개인이 특정 이슈와의 관여 정도를 말하며 관여정도가 낮은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지향성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일정 관여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비례해 지향성 욕구가 형성된다. 이러한 태도·행동의 결정 욕구가 높을수록 미디어 정보 의존도가 높아진다(Bryant & Oliver, 2008). 이러한 태도·행동의 결정 욕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위지향성 동기와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지향성 동기는 개인이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지 여행 정보를 알기위한 동기를 말하며 소통 동기는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자 하는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의존 동기는 오락·휴식(play) 동기로 개인 혼자 미디어를 이용해 휴식을 취하는 개인적 유희 동기와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사회적 유희 동기가 있다.

3) 미디어 의존과 위협인식

위협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

지 않다(Jin & Han, 2014). 이로 인해 개인은 특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결과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Ball-Rokeach, 1985).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지각과 미디어 의존과의 관계를 연구한 로게스(Loges, 1994)에 따르면, 개인은 위협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면서 이해와 태도·행동의 목적을 위해 방송과 신문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워싱턴에 위치한 헬렌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사람들은 대인커뮤니케이션에서 얻는 재난정보 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다(Hirschburg, Dillman & Ball-Rokeach, 1986).

위협은 위험(danger), 추측(conjecture), 개인적 취약성(personal vulnerability)을 포괄하는 개념이다(Loges, 1994). 위험은 상실이나 해로움에 대한 노출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추측은 불확실한 확률에 근거한 것을 의미한다. 위협에서 위험이 가지는 특성은 잠재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적 취약성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말한다. 미디어 이용 동기에 있어 높은 위협에 대한 지각은 모든 미디어 유형에 있어 높은 의존 현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oges, 1994). 위협을 느끼는 개인들은 미디어 조직이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과 같은 재원을 강화해 줄 방안들을 제시한다고 지각한다(Lowrey, 2004).

재난상황에서 미디어 의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교태(2014)는 대학생들이 세월호 사건 전과 후 뉴스 이용량의 변화 현상을 살펴보고, 미디어 의존과 위험인식 그리고 의존과 재난 관련 태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재난보도는 휴대폰, PC, 방송을 통한 뉴스 이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재난보도가 뉴스 이용량 증대와 관련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손실이나 피해를 지각하고 추측하는 정도가 클수록 미디어가 도움이 되는 매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된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미디어 의존, 위험인식, 뉴스 이용량에 대한 분포는 특정 수준의 위협에서 미디어 의존과 뉴스 이용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미사(2016)는 메르스 보도에 텔레비전과 인터넷, 신문의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텔레비전 의존도만이 사회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의존도와 신문 의존도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질병 상황에서 전통 미디어인 텔레비전이 위험지각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대중들에게 재난정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여도가 낮을 때 텔레비전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 영향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새로운 매체와 정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텔레비전 매체가 공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터넷 의존도 자체는 높았으나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는데, 인터넷의 경우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존할 때는 이미 높은 위험지각을 갖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및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난정보에 대한 미디어 의존 현상을 살펴봄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에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 의존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미디어 의존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미디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상시 미디어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과 후(이주 전, 이주 후)를 구분하여 평상시에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유형과 이용 동기 등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이는 재난상황에서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연구문제 2.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난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보 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은 미디어 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상황에서 재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이 클수록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보 획득 동기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협인식이 클수록 미디어 의존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어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위협인식은 그들의 미디어 의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들이 재난에 대한 위협인식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미디어 의존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2020년 6월에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재난 및 외국인 근로자, 미디어 의존 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후 연구주제와 맞는 자료를 탐색하고 연구방법을 결정했다.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구방식인 연역적 방법론으로는 더 이상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귀납적 연구방법인 질적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증적 자료에서 시작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질적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중에는 반구조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토론, 자료로서의 내러티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상시(이주 전, 후)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재난정보의 취득 방법에 대해 좀 더 풍부한 논의를 하고자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정보제공자의 경험과 그들의 해석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용하는 담화의 하나이다. 이 연구방법은 직접적 관찰로부터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응답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미화 할 수 있게 해준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관찰한 것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방법을 제공해 주기도 하며,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건과 경험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을 하기도 한다(Hatch, 2002/2008). 심층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 반구조화된 인터뷰, 비구조화된 인터뷰로 구분된다.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는 연구자가 질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연구 대상자와 대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록 대화의 내용이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용숙, 1998).

심층 인터뷰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10일간 연구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 근처 카페에서 면대면(face-to-face)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단독 또는 2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대면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충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매 인터뷰마다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2일 이내 인터뷰 내용 전체를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개별 심층인터뷰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관점을 같은 시간에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의 자료 분석에서 얻어진 이슈를 더 깊이 통찰하는 유용한 방법이며, 응답자들에게서 얻은 이해를 응답자들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1980년대까지 기업에서 개발된 상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다시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품 시장조사에 사용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질적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 응답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화된 집단 인터뷰로 발전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특정 정책이나 비슷한 경험에 대한 연구 응답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실행 연구나 평가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Corrine, 2008).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20년 6월 12일 응답자의 숙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 응답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총 7명의 연구 대상자 중 5명의 연구대상자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질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응답 내용이 있으면 응답자 본인이 하고 싶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인터뷰 전 응답자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인터뷰를 마친 후 최대한 인터뷰 대상자가 사용한 표현이나 용어에 충실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추가할 내용이 있을 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였다.

3. 연구대상

1) 목적 표집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행원양식단지에는 26개 양식사업장이 있으며 21개의 사업장에 각 1명씩 총 2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1명의 근로자 중 스리랑카가 국적인 근로자는 18명이고, 인도네시아가 국적인 근로자는 3명이다. 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7명을 연구대상자로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¹⁶⁾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목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은 특정 현상에 대한 발견과 해석,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조사에 적합하다. 즉, 연구의

16) 질적 자료는 현상을 경험해 온 개인으로부터 수집되는데, 질적 자료 수집 시 인터뷰 대상자의 인원 선정 기준에 대해 Polkinghorne(1989)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현상을 경험한 5명에서 25명 사이의 개인들과 인터뷰할 것을 권하였으며, Creswell(2015)은 특별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상자를 선택할 때 3명에서 10명의 연구대상을 인터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연구 응답자로부터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에서는 연구 응답자를 목적 표집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표 7> 심층인터뷰 대상자 프로파일

구분	성(性) 이니셜	출신국가	성별	나이	입국시기	학력	결혼 여부
1	M	스리랑카	남	34	16.05.01	고졸	미혼
2	S	스리랑카	남	26	16.06.12	고졸	미혼
3	S2	스리랑카	남	26	16.05.22	고졸	미혼
4	D	스리랑카	남	29	16.10.04	고졸	미혼
5	Z	스리랑카	남	26	18.03.12	고졸	미혼
6	K	스리랑카	남	39	16.07.04	고졸	기혼
7	D2	스리랑카	남	34	14.07.13	고졸	미혼

인터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7명 중 4명은 20대이고, 3명은 40대이다. 그 중 1명만 기혼한 상태이다.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 머문 응답자는 2014년에 입국하였으며, 5명은 2016년에, 1명은 2018년에 입국했다.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어떤 출신배경과 입국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1은 34세 스리랑카 출신 남성이다. 스리랑카에서 보험판매원으로 일하다가 고소득 일자리를 위해 지난 2016년 5월 1일 한국에 이주했다. 처음 이주했을 때는 진도 김 양식장에서 일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로지를 제주로 옮겼다. 2021년 3월이면 외국인 근로자 비자가 완료됨에 따라 스리랑카로 돌아가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출국할 수 없게 될까봐 염려가 크다. 한시라도 빨리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 결혼도 하고 여자친구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목표이다.

응답자 2는 스리랑카 출신 남성으로 올해 26살이다. 스리랑카에서 서비스직으

로 일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12일 한국에 입국했다. 2020년 1월 스리랑카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스리랑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 자국으로 돌아가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는 것이 최종 계획이다.

응답자 3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올해 26살 남자이다.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위해 지난 2016년 5월 22일 한국에 입국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진 찍는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시험을 봐서 통과했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 1년을 기다렸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의류판매업을 할 계획이다.

응답자 4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올해 29살 남자이다. 건설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2016년 10월 4일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이주해 완도에서 새우 잡이를 했는데, 노동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제주도로 이직한 경우이다. 제주도로 이직 후 모슬포 양어장에서 일하다가 친구소개로 급여를 더 주는 행월양어장으로 왔다.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을 위한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일 계획하고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 비자를 연장해서라도 한국에 몇 년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응답자 5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26세 남자이다.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하다가 급여가 너무 낮아서 지난 2018년 3월 12일 한국에 입국했다. 제주도 표선 양어장에 일하다가 근로자의 증가로 권고사직을 받은 후 행월양식장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스리랑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은 한국이 마음에 무척 든다고 설명했다. 비자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희망이 있다.

응답자 6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39세 남자이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4일 한국에 입국했다. 충청남도 김 양식장에서 한 달 간 근무하다가 근로자들과의 불화로 제주도로 이직하게 됐다. 행월양식장 단지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인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한국어 실력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좋아 스리랑카 동료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응답자 중 유일하게 기혼자이며, 부인과 8세 자녀가 스리랑카에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번 돈으로 스리랑카 땅을 매입해 부인은 스리랑카에서 임업을 하고 있다.

응답자 7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34세 남자이다. 스리랑카에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7월 13일에 한국에 입국해 4년 10개월간 근로한 후 스리랑카로 돌아갔다가 비자를 연장하고 2019년에 다시 한국에 왔다. 행원양식단지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 중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응답자이다.

2)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응답자들은 양식단지라는 작업공간에서 근로하며 한국 근로자와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한다. 이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의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았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행원양식단지’ 26개 사업장 중 스리랑카 및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한 21개의 양식장은 서로 마주 보며 밀집되어 있는 구조다. 양어장 위층에 숙소가 있는데 그곳에 스리랑카 근로자 1명 또는 2명과 한국인 근로자 1명이 함께 생활한다. 매일 오전 5시 30분 숙소에서 6시부터 있을 오전 작업을 위해 준비한다. 오전 작업은 11시 30분까지 이뤄지며 보통 사료를 주거나 출하작업을 한다. 오전 작업이 끝나면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다. 점심은 다른 단지에 있는 스리랑카 동료들과 같이 숙소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한국인 근로자와 지역식당을 방문하기도 한다. 점심식사 후 오후 4시까지 휴식 시간이다. 숙소에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양어장 오후 작업을 한다.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정식 근무는 끝이 난다. 오후 6시부터는 양식단지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근처 운동장에 가서 스리랑카 야구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cricket)을 하고 숙소에서 혼자 요리를 해서 먹거나 동료 숙소에 모여 같이 저녁을 먹는다. 그 후 저녁 여가 시간을 갖다 오후 11시에 취침한다.

한 달에 2번 격주로 일주일에 휴무이며, 휴무일은 사업장마다 다르다. 휴무 전날에는 스리랑카 동료들과 한국인 근로자가 없는 숙소에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한다. 휴무 날에는 주로 스리랑카 동료들과 제주시에 나가 생필품 쇼핑을 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해 도내 곳곳을 여행한다.

양식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21명 모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 응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 작성된 평균적인 근무시간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은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IV. 연구결과

심층인터뷰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인터뷰에 참여한 제주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상시(이주 전, 후) 미디어 이용 현황, 재난상황에서의 정보 습득 방법, 재난에 대한 위험인식 등 세 개의 범주에 따라 살펴보았다.

1. 평상시 미디어 이용 행태

평상시(이주 전, 후) 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평상시 미디어 이용 행태가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주 전 미디어 이용 행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퇴근 후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부 응답자들은 라디오, 신문 등도 가정 및 직장에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보통 일 끝나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아주 좋아해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영화, 스포츠 많이 봤어요. 라디오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끔 들었고요.”
(응답자 4)

“퇴근하고 집에서 주로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뉴스,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 보고 한국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한국드라마로 대장금, 풀하우스 보면서 한국어 공부 했어요. 신문, 라디오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어요.” (응답자 1)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한국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대장금, 풀하우스, 꽃보다 남자를 많이 봤는데, 드라마 속 한국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한국 사람들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응답자 5)

“텔레비전은 집에서 퇴근 한 후 매일 봤어요. 뉴스, 스포츠 많이 봤고 한국드라마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스리랑카 드라마보다 많이 봤어요. 회사에 신문이 있어서 신문은 거의 매일 봤어요.” (응답자 6)

응답자들은 대부분 텔레비전을 퇴근 후 가정에서 저녁 시간 및 여가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뉴스, 드라마, 영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는 가정이나 직장에 노출되면 이용했고, 신문은 응답자가 구독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직장에서 구독하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한국 이주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 대부분의 경우, 한국 드라마 시청은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이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응답자 7명 모두 한국 이주 전 자국에서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에 오기 2~3년부터 스리랑카에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많이 썼어요. 스리랑카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봤어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인터넷 너무 비싸서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와이파이만 있는 곳에서만 사용 할 수 있어요.” (응답자 4)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IMO, 유튜브로 스포츠 영상 등을 봤어요.

17) 2012년 11월~2013년 3월에 ‘대장금’이 방송된 스리랑카에서는 99%이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대장금’ 외에도 ‘동이’, ‘풀하우스’, ‘꽃보다 남자’, ‘해를 품은 달’ 등 한국드라마가 인기리에 반영되었다.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한국만큼 잘 할 수 없어요.” (응답자 7)

“저는 2020년 1월에 휴가 받고 스리랑카 다녀왔어요. 그때 스리랑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유튜브 하려고 했는데 스리랑카는 와이파이 잘 없어서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응답자 2)

응답자들은 한국 이주 전, 자국에서 근로시간 및 여가시간에 친구 및 지인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검색,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인터넷 요금이 한국보다 비싸고 속도가 느려서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주 전, 자국에서 전통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주로 이용했으며, 라디오, 신문 등은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이용해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하게 시청하였다. 응답자 모두 자국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했으나, 열악한 통신 환경 및 값비싼 요금으로 이용시간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 후 미디어 이용 행태

한국에 입국한 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전통 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본인의 이용 의지가 아닌 한국인 근로자가 이용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식당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노동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숙소에 텔레비전이 없거나, 숙소에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퇴근 후에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이 너무 힘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숙소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볼 수 없어요.” (응답자 3)

“스리랑카에 있을 때 한국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한번도 한국드라마를 본 적 없어요. 한국어 공부하려고 보고 싶어도 (숙소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봐요.” (응답자 5)

“숙소에서 저녁 7시에 뉴스를 봐요. 한국말 잘 모르지만, 소장님이 보고 있어서 그냥 봐요. 라디오나 신문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응답자 1)

“1년 전 쯤 숙소에 텔레비전이 있을 때는 뉴스는 안 봤지만 오락프로그램 ‘도시어부’ 잘 봤어요. 한국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응답자 2)

“숙소에서 사장님이나 소장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한 것 같아요.” (응답자 6)

“식당에 가면 텔레비전 있어서 가끔 화면만 보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숙소에 텔레비전 없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오히려)스리랑카에 있을 때 한국드라마 많이 보고 스리랑카 뉴스에 나오는 한국 뉴스로 한국소식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자 7)

외국인 근로자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들(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가장 많이 이용해 본 미디어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라는 방송통신위원회(2011)의 조사결과

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텔레비전을 이용한 경험은 있지만 주체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했으며, 신문·라디오·잡지 등 전통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사업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사업장 및 숙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미디어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에 따라 미디어 이용 경험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응답자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전통미디어 이용은 전무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습득, 여가활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국에 있는 친구 및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해요. 오전 작업, 오후 작업이 끝난 후 시간이 날 때 마다 스리랑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4번씩 IMO로 영상통화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 1)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식당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매일 6번 정도 스리랑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해요.” (응답자 2)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요.” (응답자 3)

또한 대부분의 여가시간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스리랑카 관련 피드를 확

인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뉴스, 드라마, 영화를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시간에 주로 게임을 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올린 피드를 보고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다들 잘 지내는지 확인해요.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스리랑카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서 봐요.” (응답자 1)

“유튜브로 스리랑카 드라마, 뉴스를 보고 페이스북으로 스리랑카 뉴스나 유머 등을 스리랑카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요.” (응답자 2)

“일 끝나고 시간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시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응답자 3)

또한 한국으로 이주 후, 근로시간, 급여, 이직 등 근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 인터넷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온 만큼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법은 스리랑카와 달라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요. 또 일하던 곳의 월급이 적거나 일이 힘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물어보거나 직원을 구하는 피드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연락해요.” (응답자 4)

“한국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친구들이 페이스북 피드에 자기 공장에 사람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거 확인하고 연락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비자 끝날 때 까지 사장님 허락 안 해줘도 회사 3번 옮길 수 있는데, 회사 옮기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월급, 일하는 시간,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잘 알아보고 회사 옮겨야 해요.” (응답자 6)

응답자들은 휴무일에는 스리랑카 지인들과 주로 도내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렌터카 정보, 여행 장소 등을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한 후 정보를 얻기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행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얻고 있었다.

“스리랑카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제주도 여행사진 올린 것 보고 우리도 렌터카 타고 구글맵, 카카오맵으로 찾아갔었어요.” (응답자 3)

“부산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친구가 왔을 때 구글검색으로 ‘제주에 좋은 곳’을 영어로 찾고 다시 스리랑카어로 번역해서 찾아갔어요.” (응답자 5)

“페이스북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던 사진들도 올리고, 여행 장소 정보도 같이 공유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스리랑카 소식도 많이 봐요.” (응답자 7)

“우리는 제주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검색 많이해요. 저번 주에 친구와 구글검색으로 제주시에 타투샵 어디 있는지 검색해서 샵에 갔다 왔어요.” (응답자 4)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스리랑카에 있을 때 보다 한국으로 온 뒤로 자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지인들과 연락하거나 스리랑카 소식을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 잘 안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해야 해요. 한국에서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응답자 3)

“한국에서 스리랑카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소식 알려면, 페이스북, 메신저 많이 해야해요. 스리랑카에서는 인터넷 비싸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못했지만 한국은 인터넷 아무데서나 다 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아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답자 5)

이처럼 인터넷 미디어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응답자 7명 모두 한국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외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스리랑카에 비해 발달한 인터넷 통신망으로 저렴한 요금과 빠른 속도라는 장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 미디어가 의제설정과 시민 사회화에 초점을 둔다면, 상호작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소셜미디어는 의견을 표현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는 동기를 충족시키는 특성이 있다(금희조, 2011).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 및 포털, 검색엔진을 통해 근로시간 외에 가능한 여가시간에 자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화상통화 및 음성 통화를 하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친구 및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근로를 위해 이주한 국가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자국의 미디어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국 사회로의 귀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곳으로 변모했다 할 수 있다(Zou & Cai, 2002).

한편 이주민의 인터넷 이용은 구직이나 사회적 문제 처리, 인권 보호를 위한 정보 검색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국의 정보를 지속해서 추구하게 함으로서 과거 관계의 실질적 유지와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eiskorpf & Kissau, 2008). 인터뷰 응답자들 또한 구직과 이직 그리고 근로문제에 대해 검색엔진을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뉴스, 드라마,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자국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하고 있었다. 이들이 평상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미디어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IMO, whats app, messenger로 나타났다.

2.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1) 자연재난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한국에서 겪었던 자연재난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동적으로 ‘태풍’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들었다. 이들 모두 양식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양식장 특성상 제주도 해안에 밀접해 있고,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어 한다는 점에서 태풍이 오면 소위 말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태풍 관련 최초 정보는 주로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얻고 있었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최초 정보 전달 채널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타 양식장의 스리랑카 동료들과 문자메시지로 공유하기도 한다.

“태풍이 제일 무서워요. 양어장은 태풍이 오면 해야 할 일이 많고, 정전이 되면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 죽게 되니까 잠도 잘 못 자요. 사장님, 소장님이 태풍 소식 계속 알려줘서 알고 있어요.” (응답자 1)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태풍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태풍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사장님, 소장님이 이제 곧 태풍 온다고 말해줘요.” (응답자 2)

“여기 스리랑카 친구들 다 같이 양어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태풍 뉴스 메신저로 말해주거나 만나면 태풍 몇 시에 올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응답자 3)

재난안전문자로 태풍 정보를 받은 후에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태풍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windy’를 켜 태풍의 이동경로를 지속해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통미디어를 통해 자연재난정보를 얻은 경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자메시에 태풍 온다고 하면 번역 어플리케이션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windy’ 사이트에서 지금 태풍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요.” (응답자 2)

“우리 양어장 친구들 하고 태풍 이야기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뉴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응답자 5)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태풍은 한국 생활에 있어 일상적이면서 위험한 대상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태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근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보습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상황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된 정보습득은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문자 번역, 날씨 애플리케이션 확인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재난에서 재난정보 습득 경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서 관련 감염병 정보 및 방역수칙에 관한 정보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미디어, 자국 가족, 긴급재난문자로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대인커뮤니케이션

응답자들은 고용주 및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스리랑카 동료 및 친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관리해주는 ‘제주고용복지센터’ 외국인 근로자 담당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월양식단지 경우 사업장에 있는 숙소마다 한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전달이 일차적으로는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식장 근로시간이 대부분 비슷하고 각 사업장이 바로 옆에 있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및 메시지를 통한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뉴스는 아침이 되면 사장님, 소장님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많이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면서 스리랑카 친구들이랑 모여 있지 말고, 제주시 나가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줘요.” (응답자 2)

“마스크는 사장님이 사다줬어요. 사장님, 소장님이 코로나 조심해야 하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한다. 제주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응답자 3)

“양어장 단지 스리랑카 친구들 만나면 계속 코로나 이야기해요. 마트 갈 때도 마스크 써야 해요. 스리랑카 친구 사장님 가족 코로나 걸렸을 때 소장님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스리랑카 친구들 메시저로 다 알았어요. 우리 그 친구 만날 수 없었어요.” (응답자 5)

“여기 행원 양어장단지에서 내가 한국말을 제일 잘해서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마트나 식당 갈 때 마스크 쓰고 가야 한다’, ‘제주시 가면 안 된다’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스리랑카 친구들한테 다 말해줘요.” (응답자 6)

이러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인터뷰 응답자 1의 고용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었다.¹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확진자 발생 근무지의 근로자와 밀접 접촉을 하지

18) 2020년 12월 24일 인터뷰 응답자A의 고용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2021년 1월 10일 자가격리 중이던 또 다른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인터뷰 응답자A의 경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다.

말아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후 스리랑카 근로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사장님이 사장님 가족이 코로나19 걸렸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양어장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소식 다 알려줬고, 친구들도 걱정된다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응답자 1)

“응답자1 사장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소장님이 거기 일하는 스리랑카 친구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응답자 7)

한편 응답자 2명의 경우, 자국의 언어인 스리랑카 언어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비자연장 업무 차 ‘고용센터’를 방문한 당시 담당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에 비자 때문에 ‘고용센터’간 적 있어요. 그때 외국인 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안내문 줬는데, 스리랑카 말로 적혀 있어서 놀라기도 했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응답자 5)

위에서 언급한 ‘안내문’은 응답자들이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처음으로 자국의 언어로 안내받은 유일한 문서이다. 더욱이 이 문서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면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센터 방문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정보습득의 중요한 채널로 여겨져 왔으며, 재난상황시 위기에 대한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tistiol, 2013; Coleman, 1993).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새로운 지식 전파에 더 적합하지만 대인커뮤니케이션은 규범적 행위를 증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Price&Oshagan, 1995). 메르스 관련 대인커뮤니케이션 중 면대면으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메르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람들일수록 메르스 예

방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우현·정용국, 2016). 이러한 결과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예방행위 의도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2) 인터넷 미디어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국에 있는 가족 걱정, 비자 만료에 따른 귀국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정보를 페이스북에 업로드 해주는 스리랑카인은 응답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스리랑카인들이 다. 이들은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국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스리랑카 코로나19 관련 뉴스 등을 매일 자국의 언어로 실시간 업로드 해주고 있었다. 모든 응답자들은 이들의 피드를 보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매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족한 정보는 구글 뉴스, 스리랑카 포털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한국과 자국의 코로나19 정보를 습득하고, 취득한 정보는 동료들과 면대면 및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페이스북에 한국 코로나 뉴스를 스리랑카 말로 번역해서 올려주는 스리랑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린 피드를 보고 오늘 몇 명 확진됐는지,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 코로나 19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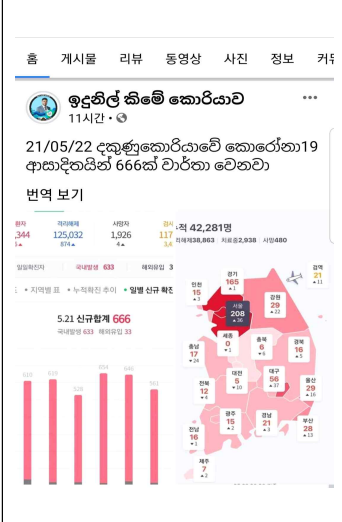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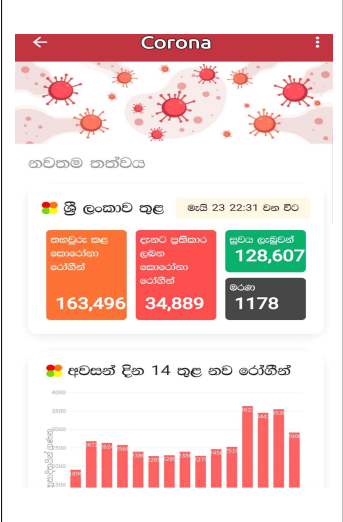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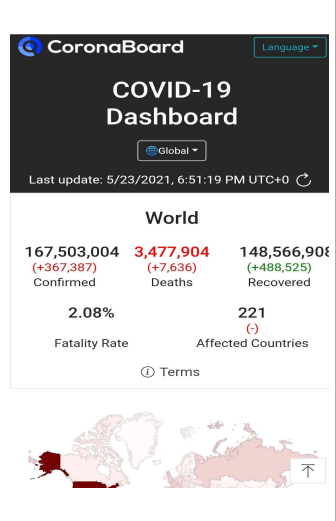
“페이스북에 매일 스리랑카 코로나19 뉴스, 한국 코로나19 뉴스 올려주는 스리랑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 피드 보고 알고 있어요. 몰랐던 정보들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스리랑카 언어로 코로나19 뉴스 볼 수 있는 곳은 이곳 뿐 이에요.” (응답자 4)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확진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스리랑카 사람의 피드를 봤어요.” (응답자 6)

“매일 corona board¹⁹⁾에서 한국, 스리랑카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코로나19가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응답자 3)

“어머니와 누나가 스리랑카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매일 스리랑카 앱(Helakiru)에서 스리랑카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거나 쉬는 시간에 뉴스를 확인해요.” (응답자 5)

<그림 3>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미디어

		
<p>페이스북(facebook)</p>	<p>스리랑카 포털사이트 (Helakiru)</p>	<p>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corona board)</p>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재난정보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얻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강했지만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아쉽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19) 코로나19(COVID-19)실시간 상황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세계 각 국가들의 통계 및 뉴스 등을 취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텔레비전에는 계속 코로나19 뉴스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19 (정보)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텔레비전으로 뉴스 볼 수 없어서 코로나19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스리랑카였으면 인터넷 말고 매일 텔레비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응답자 5)

또한 응답자들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제공받는 코로나19 정보는 주로 수도권 위주의 정보들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한국뉴스는 거의 서울에 관한 뉴스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 단계도 제주도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알았어요.” (응답자 4)

“제주도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아무도 어디에서 제주도 코로나19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응답자 6)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의 언어로 번역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또한 2021년 5월 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거주 외국인주민 대상 코로나19 재난문자를 6개국(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언어로 번역해 페이스북, 왓츠앱, 위챗 등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스리랑카 언어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이서현·최진봉, 2017).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사회연결망을 통한 정보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정 민족 집단의 공동체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Choldin, 1973; Wilson and Portes, 1980). 이주민이 점점 늘어갈수록 같은 출신지의 이주민 사이에서 즉,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주민들끼리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프라인 사회연결망만을 이용할 경우 충분한 정보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을 갈구한다(이창원, 2013). 더욱이 모바일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한 미디어생태계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과 신문 같은 전통미디어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Sundar & Nass, 2001). 본 연구에서도 스리랑카의 집단 공동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난상황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자국의 가족들

한국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스리랑카 ‘월드 뉴스’에는 한국 뉴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자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음성통화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관해 다루는 코로나19 뉴스를 자국 가족으로부터 전달받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세하게 몰랐던 코로나19 정보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²⁰⁾사태 때 자국 가족으로부터 많은 양의 보도를 접했고, 일부는 자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

“매일 스리랑카 가족들과 통화하는데 가족들이 한국 코로나19 이야기 많이 해줘요. 대구에 코로나 많이 나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빨리 스리랑카

20) 2020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60대 여성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신천지예수교 관련 확진자는 5,21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급변했다.

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리랑카가 더 위험해서 그냥 한국에 있으라고 해요” (응답자 1)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가족들이 스리랑카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제주도는 괜찮다고 대구하고 멀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족들은 한국 뉴스를 보고 매일 (저를)걱정했어요.” (응답자 5)

“스리랑카 뉴스에 한국뉴스 자주 나와서 가족들이 한국 코로나 이야기 해 줘요.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응답자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지역감염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뉴스의 중요도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국에서 보도되는 한국 뉴스는 한국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제주지역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스리랑카로부터 한국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동선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K-방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4) 긴급재난문자²¹⁾

응답자들은 긴급재난문자로 코로나19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는 가능했지만,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응답자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번역한 후 내용을 이해하거나 상대적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동료에게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21) 재난문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가진 17개 시·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국시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 화학 유출 등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자연재난 재난 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 와요. 문자메시지 50% 이해 할 수 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내용이 길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스리랑카 동료들에게 물어보거나 번역해서 이해해요.” (응답자 2)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긴급재난문자는 번역해야 잘 알 수 있어요. 번역하거나 여기 한국어 잘 알고 있는 양어장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해해요.” (응답자 1)

“소리도 나면서 문자 메시지가 오는 시스템은 좋아요. 그런데 또 번역해야 해서 힘든 점도 있어요. 스리랑카 언어나 영어로 문자메시지 온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응답자 4)

“우리 스리랑카말로 메시지 오면 우리 빨리 이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3)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 확산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한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는 재난 문자가 자국의 언어나 최소한 영어 등으로 제공될 것을 희망했다.

3. 위협인식과 미디어 의존

1) 재난상황에서의 위협인식

스리랑카에서 자연재난은 2004년 쓰나미가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자국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다고 응답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태풍이 일상적 재난이며, 직접적인 두려움

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에 태풍, 지진 잘 없어요. 태풍 와도 산 많아서 걱정 없어요. 그런데 2004년에 쓰나미가 왔어요. 그때 너무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 쓰나미 또 올 까 봐 걱정돼요.” (응답자 3)

“스리랑카 우리 집 태풍, 지진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태풍 많이 있어요. 양어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태풍 오면 정전되면 잠도 못 자고 할 일 많이 생기니까 태풍 확인 잘해야 해요” (응답자 5)

“스리랑카 우리 동네는 태풍 잘 없어요. 제주도는 태풍 많아요. 우리는 양어장 태풍 오면 비상이에요. 바람 때문에 정전되면 물고기 다 죽어요. 태풍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7)

“스리랑카 있을 때 태풍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풍이 가장 무서워요. 태풍 오면 양어장 지붕 날아갈 수 있어요. 정전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걱정해야 해요.” (응답자 1)

“몇 년 전에 태풍 와서 양어장 피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일 (많이)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응답자 2)

응답자 모두 제주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양어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태풍이 오면 직접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 응답자들은 태풍의 치명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응답자 모두 코로나19는 감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매우 위협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이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국보다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메르스 겪어봐서 코로나19 왜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규칙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리랑카는 메르스 없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 코로나19 왜 위험한지 잘 몰라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 안 해요.” (응답자 5)

“세화 하나로 마트, 식당가면 한국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왜 위험한지 잘 알아서 규칙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스리랑카는 사람들은 규칙 잘 안 지켜서 지금 옆 마을 자유롭게 갈 수 없어요.” (응답자 2)

“2021년 3월에 비자 끝나요. 그래서 스리랑카 가야 해요. 저 스리랑카 가서 결혼식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걱정되고 가서 코로나 확진될까봐 무서워요.” (응답자 1)

“지난 1월에 스리랑카 갔을 때는 코로나19 심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스리랑카 아주 심각해요. 스리랑카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응답자 3)

응답자들은 한국인들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한차례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자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²²⁾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이 자국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위협인식으로 인해 일부 응답자는 비자 만료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재난을 일종의 위험이라고 봤을 때, 위협인식은 위험에 대한 정보, 즉 익숙함의 정도와 그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지에 관련한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Slovic, Fishhoff & Lichtenstein, 1984; Slovic, 1987). 응답자들 또한 한국에 이주한 후 매년 경험했던 태풍과 1년 넘게

22) 2021년 6월 1일 기준 스리랑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3452명, 사망자는 1,441명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스리랑카는 이동 제한 및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위협인식과 미디어 의존

응답자들은 태풍이라는 자연재난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경험했던 기억을 소환하며 높은 위협인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마다 응답자들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안전문자 메시지로 최초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태풍의 상황을 확인하고, 예측하며 피해상황에 대비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장님이나 소장님에게 태풍 온다는 소식 들으면, 스마트폰으로 ‘windy’ 사이트에 들어가서 태풍이 제주도로 언제 오는지 계속 확인해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어서 날씨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인터넷사이트 뿐이죠. 직접적으로 제주도로 태풍이 오고 있으면 양어장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양어장 점검을 해야 해요” (응답자 3)

“그런데 ‘windy’사이트는 그냥 태풍이 움직임만 시간별로 나오는 사이트예요. 태풍 위치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풍으로 다른 지역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장님이나 소장님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죠.” (응답자 5)

응답자들은 자연재난인 ‘태풍’에 대한 위협인식을 느낄 때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얻는 정보는 태풍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과 스리랑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응답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인식은 높아졌다. 그때마다 응답자들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구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 스리랑카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때, 코로나19가 두려웠어요. 매일 페이스북으로 코로나19 뉴스 확인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확인했어요.” (응답자 3)

“2021년 5월에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걱정돼요. 그래서 매일 페이스북, 구글에서 스리랑카 뉴스 찾아봐요. 스리랑카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매일 확인 할 수 있어요.” (응답자 2)

“스리랑카에 부모님, 여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었어요. 너무 걱정되서 매일 스리랑카 코로나19뉴스 검색해서 보고, 스리랑카 확진자 매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간될 때 마다 영상통화하면서 스리랑카 소식 들었어요.” (응답자 5)

“재난문자 올 때마다 걱정되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한국 코로나19 뉴스 확인하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봐요.” (응답자 7)

미디어를 통해 제공받는 재난정보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곽천섭·이양환, 201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더욱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코로나19 감염병은 국가, 인종 그리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 대상이 될 수 있는 질병이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재난약자 집단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언어적 약자로서 재난정보 습득에 취약한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에 대해 위험인식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상시 미디어 이용 현황과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평상시(이주 전, 후) 미디어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주 전, 가정과 직장에서 자유롭게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문, 잡지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퇴근 후 여가시간을 통해 혼자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뉴스, 드라마 등을 시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직장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스리랑카에서 한류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큼 한국드라마 시청 경험이 응답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한국드라마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에 반해,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값비싼 요금과 열악한 인터넷 통신 시설로 인해 이용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이주 전 자국에서 자주 이용하던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통미디어 이용은 전무했던 반면,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특성상 속소에 텔레비전이 비치되지 않아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주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숙소에 텔레비전이 있었다는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함에 따라 간접적 시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직장, 숙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로 인해 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미디어는 자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자국 미디어 콘텐츠 이용, 근로 및 여행 등과 같은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 검색, 게임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정보의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유입된 이들이 사회를 탐색하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다르게(방송통신위원회, 2011: 법무부, 2012)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유입국의 미디어 이용에 제한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 노출이 극히 제한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미디어만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대체적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 자국 드라마, 음악, 스포츠,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디어 이외의 문화 자본습득 통로가 제한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터넷 미디어 이용 유형은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사회연결망을 유지하고 강화하거나, 여가를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상시 미디어 이용 현상은 재난상황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들은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뉴스의 특성이나 편성에 대해 익숙한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구교태, 2014).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정보를 대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미디어, 자국으로부터 정보습득, 재난안전문자 등으로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구분 없이 최초의 재난정보 습득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재난 발생 상황에서 개인에게 타인이 사회적 맥락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것은 재난 대비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사회적 규범이 포함되기 때문이다(Ajzen, 1991). 응답자 모두 재난상황 시 고용주 및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재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후 스리랑카 동료들에게 대면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는 재난정보를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고 있었다. 스리랑카 출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커뮤니티를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의 재난 및 한국과 스리랑카의 코로나19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미디어가 재난 관련 위기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뉴스를 자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사회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온 세계인의 관심은 코로나19에 쏠려 있다. 가족을 타국의 일터로 보낸 상황이라면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뉴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가족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있는 아들·남편·동생과 음성·영상통화를 하며 자국에서 취득한 한국의 재난뉴스를 전달해준다. 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의 재난뉴스는 한국에서 습득했던 정보보다 더욱 상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정보 모두 긴급재난문자로 제공받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문자 내용을 100% 이해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응답자 모두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난인 태풍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19 또한 감염병이라는 특성과 자국 가족들의 신변 걱정 등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인식의 증가는 미디어 의존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응답자들은 불안감을 해소시키거나 예방정보 얻기 위해 유입국의 미디어 이용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인터넷 미디어에 의존

하는 현상을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국 포털사이트나 자국어로 대화하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국민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크게 나타났다.

2. 제언 및 한계

재난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최초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그러나 한국어로 전달받는 정보의 이해도 및 정확도는 높지 않다. 연구결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역사회 확진자 급증,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확진자의 세부 동선,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 제주안심코드 이용법 등 상세한 정보는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에서 정보의 신속도가 중요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최초의 정보 전달자인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정부지침 등 재난 안전정보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로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보에 대한 신뢰는 재난 관련 예방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어 절대적이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재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자국의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유입국의 유일한 정보 획득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활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셜미디어가 개인의 사적 관계 관리 도구에 머물지 않고 위기정보 전달과 위기로 인한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도구로서 위기 관여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현정, 2014).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터넷 미디어 의존이 평상시 및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나타난 재난이라는 위기상황에서의 인터넷 미디어 의존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민의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의 재난 안전정책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면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왜곡된 뉴스나 정보로 잘못된 재난안전 정보를 취득할 경우 예방 안전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에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부 및 해당 지자체의 재난 안전정책이나 콘텐츠 등을 각국의 언어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검증된 정보가 자국민의 개별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난상황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정보전달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함께 재난이 임박했을 때 비상경보 및 경고 수단이나 재난 발생 후에는 긴급 구조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은 결혼 이주민이나 일반적인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전통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만을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난정보 제공에 있어 인터넷 미디어와 고용주 및 한국인 근로자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사용하는 통합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재난정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기관의 책임성 있는 정책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난문자는 해당국 언어 및 기호, 그림 등으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몇몇 국가들의 통역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스리랑카어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²³⁾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주지역 곳곳에서 근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된 국가의 통역지원이 요구된다.

23) 제주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총 7개국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언어의 경우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1644-644) 또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1577-0071)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본 연구 대상자에 제한된 결과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각 지역 다양한 영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제주 지역 행원양식장 단지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외국인 근로자 7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제주 각 지역에는 다양한 업종에 근무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도출된 결론을 다른 외국인 근로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답자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인터뷰 답변이 상세하게 서술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들이 이주 후에 겪는 재난정보의 습득에 있어 언어적 한계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난정보 취득에 따른 미디어 의존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자국민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정보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 대인커뮤니케이션, 자국으로부터의 정보 습득,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정보 유통 채널 중 어떠한 채널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예방 행동 수칙에 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재 연구 분야에 편중되거나 재난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한 기존의 재난연구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 습득 채널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안전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천섭·이양환 (2014). 재난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과 정보 전달 채널로서의 사회적 자본: 재난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권 3호, 5-41.
-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권 3호, 128-147.
- 구원희·박진찬·백민호 (2015). 국내거주 외국인의 재난 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1권 2호, 279-286.
- 구효정·주성빈 (2018). 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8권 5호, 83-92.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162-186.
- 김양은 (1995). 국내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경향분석. <한국언론학회> '95년 가을철학술 발표회 논문.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1호, 5-25.
- 김옥태·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344-367.
- 김유향·권순영 (2011). 일본대지진과 재난대응 미디어로서 SNS의 가능성. 이슈와 논점. <이슈화 논점>, 214호.
- 김윤희·류현숙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 정보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문집>, 11권 3호, 151-176.
- 김인숙 (201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79-106.
- 김진영 (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미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민족 정

- 체성, 미디어 의존,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119-154.
- 김현곤·박정은·박선주·김윤의 (2011).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현정 (2014). 재난 위기 관련 정부 기관 소셜미디어의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광고PR실학연구>. 7권 4호, 60-98.
- 류현숙 (2013).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험정보 확산과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마혜리·조인희 (2014). SNS소통이 대인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6-61.
- 문순덕·고승환·고경민 (2017).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민주노총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보고서. <민주노총>.
- 박미사 (2016).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석사 학위논문.
- 백연경 (2014). 사회과학적 개념과 실천으로서의 '위기'. <한국문화인류학회>, 47권 1호, 251-288.
- 변성수·김도형·이재은·라정일·조성·김가희 (2018). 한국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4권 5호, 15-34.
- 변윤관·이현지·최성종·조용성·배병준 (2019). 재난 약자의 재난 경보 취약성과 기술적 해결 방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11, 154-156.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영·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우현·정용국 (2016). 매스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면대면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및 조절

- 효과.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121-151.
- 윤용필·김흥규 (2012). 모바일 N스크린 수용자 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주관성연구> 25호 95-119.
- 이서현·최진봉 (2017).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제주지역 폭설재난에 대한 프레임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권 1호, 28-55.
- 이와야 사토미 (2019). 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논문>.
- 이용숙 (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교육과학사.
- 이창원 (2013).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인터넷 이용과 사회적응 :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3-06. 이민정책연구원.
-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권 1호, 143-176.
- 주성빈·윤병훈 (2018).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관련 미디어 노출 정도와 사건충격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권 4호, 181-192.
- 차배근 (1990).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서울: 나남.
- 최재웅 (2012).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전달체계 개선 연구. <방송공학회지>, 17권 3호, 24-39.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실태. <이주민과 함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 연구>.
- 법무부 (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2013 법무부 용역보고서, 229-241.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메르스 보도: ‘빠른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 원해. <Media Issue>, 1권 9호, 1-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주한 외국인 부문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cision Processes*,

- 50(2), 1790211.
- Ball-Rokeach, S.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 145-510.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 3-21.
- Battistiol, P. (2013). Race, class, risk, and trust: Risk Communication in post Katrina New Orleans. *Publishe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Bryant, J., & Oliver, M. B. (Eds.).(2008).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 Corrine Glesne (2008).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안혜준 역.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프레스
- Coleman, C. (1993).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societal and personal risk judgment. *Communication Research*, 7(2), 119-135.
- DeFleur, M., & Rokeach, S. (1989).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NY: Longman.
- Gudykunst, W. B., & Kim, Y. Y. (1997)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A: McGraw-Hill.
- Hatch, J. A.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2008).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 Hirschburg, P. L., Dillman, D. A., & Ball-Rokeach, S. J. (1986). 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Response to the eruption of Mount St. Helens. In S.J. Ball-Rokeach & M.G. Cantor(Eds.). Media, audience, and social structure. Newbury Park, CA: Sage.
- Ho, S. S., peh, X., & Soh, V. W.(2013). The cognitive mediation model: Factors influencing public knowledge of the H1N1 pandemic and intention th take precautionary behaviors. *Journal of Health*

- Communication*, 18(7), 773-794.
- Inhorn, M. C., & Brown, P. J. (1990). The anthropology of infectious diseas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1), 89-117.
- Jin, H. J. & Han, D. H. (2014). Interaction Between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44, 95-102.
- Loges, W. (1994). Canaries in the coal mine: Perceptions of threat and media system dependency rel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21(1), 5-23.
- Lowrey, W. (2004). Media dependency during a large-scale social disruption: The case of September 11. *Mass Communication & Society*, 7(3), 339-357.
- Price, V., & Oshagan, H. (1995).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ublic opinion. In T. L. Glasser &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pp. 177-216). New York, NY: Guilford.
- Sundar, S. S., & Nass, C. (2001). Conceptualizing sources in onlin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1(1), 52-72.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 Slovic, P., Fis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 183-293.
- Weiskorpf, I. & Kissau, K. (2008). Internet and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ermany and Israe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s. *German Policy Studies*, 4(4), 95-124.
- Zou, M & Cai, G. (2002). Chinese language media in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Qualitative Sociology*, 2(3), 419-441.

Abstract

A Study of Media Dependency on the Disaster Information : Based on Interview with Sri Lankan foreign workers residing in Jeju

A highly contagious infectious disease such as COVID-19 occurs unexpectedly, and the fear of spreading the disease causes a social crisis. As the public feels anxious about the risk of infection, the desire for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 increases, and preventive measures are required. These disasters can happen to anyone. However, foreign workers who have difficulties in collecting information and judging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understand Korean are exposed to the risk of disaster. Accordingl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how to acquire disaster information in a COVID-19 disaster situation along with the usual media usage status for 7 foreign workers residing in Jeju, and examined how media dependence appear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disaster threat.

The research method was investig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edia that foreign workers usually use was TV before moving to Jeju Island and internet media after moving to Jeju Island. Before moving to Jeju Island, they mostly watched TV freely at home. And they responded that radio, newspapers, magazines, etc. were selectively us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Internet medi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its use due to high rates and poor Internet communication facilities. After moving to Jeju Island, TV was not available in the dormitory, so it was impossible to use it. However, in the case of Internet media,

they answered that they were freely using it without restrictions on fees and locations. It was found that Internet media is being used for purposes such as communication with family and friends in Sri Lanka, using Sri Lankan media content,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life in Korea such as work and travel, and playing games.

Second, disaster information was found to be acquired fro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ternet media, Sri Lankan families, and emergency text messages. The first information obtained appeared as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Korean worker, and after acquiring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was shared with colleagues. In addition, traditional media showed a phenomenon of dependence on Internet media excluded, and it was found that disaster information was mainly acquired through social media. Also, it was found that foreign workers, who are free to use smartphones, communicate with their Sri Lankan families on the phone every day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Korea's disaster situation from their families. Finally, it was found that although emergency text messages received in disaster situations deliver disaster information quickly, foreign workers understand the contents after translating text messages through a translation application due to language restrictions.

Third, foreign workers showed a threat perception about disasters, and whenever they felt a threat perception, they showed an attitude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As the world toda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the types and scale of disasters we face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various communication roles to deliver disaster information are of paramount importance. For foreign workers who are highly dependent on Internet media in disaster situations, an integrated communication strategy using both Internet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hould be prepared.

Keywords: Disaster information, Media dependence, Foreign workers,
COVID-19